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60>

눈 뜬 장님으로 헤매겠는가

질문을 했다.
 “외국의 사신들이 속속 조정에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사람을 만나도 부르면 안 되네.”

問 萬國來朝時如何
 師云 逢人不得喚

“문수보살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이 눈 뜬 장님아! 어디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問 十二時中如何淘汰
 師云 奈河水濁西水流急
 云 還得見文殊也無
 師云 者瞶瞶漢 什麼處去來

그렇다. 그런 헛된 것에 시간을 보내지 말라. 그대 자신은 본래 청정(淸淨)이요, 본래 구족(具足)이고 본래 부처이고 본래 보살이다. 이것을 깨달아, 이것을 안다면 어찌 눈 뜬 장님으로 헤매고 있겠는가.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도량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는 도량에서 와서 도량으로 가는 거야. 이 도량을 벗어나서 다시 어디가 도량인가.”

問 如何是道場
 師云 你從道場來 你從道場去 脫體是道場 何處更不是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정(定)하지 말라 했다. ‘나는 스님이다’ ‘나는 선객이다’ ‘이렇게 산 속에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 진짜 도량이다’ ‘도시에서 사는 중생은 때 묻고 더럽다’ ‘바람피운 사람은 불결하다’ ‘나는 비구(比丘)이므로 청결하다’ ‘너는 가난하고 천한 자이다’ ‘나는 부하고 귀한 자이다’ ‘너는 중생이고 나는 부처이다’ 등 이렇게 생각을 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정하는 것이 중생의 가장 큰 병이라 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우주가 이미 빈 허공중에서 허망하게 생겨난 것인데, 허망한 마음이 세운 가지가 어찌 헛되지 않을까 보나. 정함이 없으면 현재 이곳이 곧 불국토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나하(奈河)는 지옥에 있는 강을 말한다. 지옥으로 가는 도중에 빠르고 느리고 중간 정도 되는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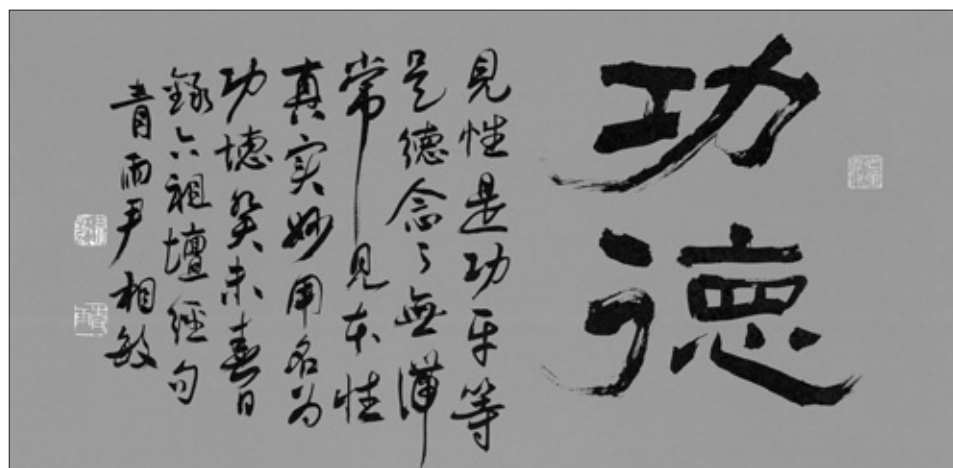
성공한 지위를 지키고 싶거든 재물·명예 등 입에 올리지 말라

도천(途川)이 있다. 삼도천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강물이 이 강을 따라 가다가 강물이 모이는 곳이 바로 나하이고 지옥이다. 지옥은 죄를 진 중생이 가는 곳이나 당연히 물도 탁수이다. 서쪽은 죽음을 상징한다. 서쪽으로 흐르는 물이 급하다고 말한 것은 죽음은 순식간에 다가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지옥에 가면 결국 탁해지고, 죽음은 순식간에 다가오는 것인데 어찌 그런 슬데없는 것에 시간을 보내는가하고 나무라고 있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하루 종일 어떻게 도태(淘汰: 씻어냄)하면 좋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하(奈河)의 물은 흐리고 서쪽의 물은 급히 흘러간다.”
 학승 말했다.

운상민의 서화산책 8 육조단경

생각 생각에 막힘 없어야



功德 見性是功平等 是德念念無滯 常見本性 真實妙用名爲 功德 (공덕 건성사공평등 시덕연연무제 상견본성 진실묘용명위 공덕)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요 평등이 덕이니 생각 생각에 막힘이 없어서 항상 본성의 진실한 묘용을 보는 것을 이듬하여 공덕이라 하니라.

功: 공 공
 等: 무리 등
 滯: 막힘 체
 妙: 묘할 묘
 德: 덕 덕

정통공정신시건공
 운조계묘본명시
 성단미용성염공
 민경총명 무평
 구일위 체등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김회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선어록 해제 40 한국선과 선어록 11

나옹화상어록(懶翁和尚語錄)

생사 해탈했다면 가는 곳 알아야

나옹혜근(1320~1376)은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하에 있던 1320년 정월 보름에 태어났다. 속성은 아(牙) 씨로 아버지는 아서구(牙瑞具)이고 어머니는 정(鄭) 씨이다. 휘는 혜근(惠勤)이고, 호는 나옹(懶翁)이며, 본래 이름은 원혜(元惠)이다. 20세 요연(了然) 스님에게 출가했다. 25세 때 양주 회암사에서 깨쳤다. 28세 때 원나라에 가서 지공대사를 참문하고, 31세에 평산처사를 참문하고 깨침을 인가받았다. 39세에 귀국하고, 지공대사의 영골을 회암사에 모셨다. 광명사에서 공부선(工夫禪)을 주관하고, 이후 왕사가 되어 수선사 및 회암사에 주석했다. 1376년에 여주 신흥사에서 입적했다. 나옹혜근과 관련한 책으로는 <나옹화상어록> 및 <나옹화상가승> 등이 전한다.

<나옹화상어록>은 나옹혜근의 법어로서 한국불교전서의 저본은 각련(覺蓮)이 집록한 서울대 소장본(홍무 10년)인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장통(簞筒) 기미년(1379) 8월 16일에 한산군(韓山君) 이색(李穡)의 서문.
- 지정(至正) 23년(1363) 가을 7월에 백문보(白文寶 和父)의 서문

- 문인 각광 (覺宏)이 쓴 행장
- 이색이 찬술한 탐명
- 범어 및 기타

<나옹어록>에 수록된 글은 상당범어를 비롯해 소 참범어, 결제 및 해제범문, 보살, 삼구범문, 수어, 서간, 영가착어, 대어, 갑본 등 다양하다.

범어 가운데 [입문삼구(入門三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입문삼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 당문삼구(當門三句)는 무엇인가, 또 문리삼구(門裏三句)는 무엇인가.” 입문삼구는 이미 부모를 인연해 세상에 태어났고, 스승을 의지해 불문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자신의 정진으로 깨침을 터득하기 위한 화두를 참구하고 있는 등 갖가지 자신에게 부여된 상태를 자각하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그와 같은 가르침을 터득해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고, 문리삼구는 순수한 제일구에 속하는 것들로서 불향상사(佛向上事)를 가리킨다. 가령 아직 본래지(本來地)에 도달하지 못해 갖가지로 분별하는 모습, 이미 본래지에 도착해 가기에 주착하는 모습, 본래지에 도달했지만 거기에 초연한 모습 등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삼전어(三轉語)는 다음과 같다. “산은 끝없이 이어지다가 어찌서 봉우리 끝에서 그치는가. 물은 가없이 흐르다가 어찌서 개울이 되어 멈추는가. 밝은 어찌서 흰 쌀로 지어야 하는가.” 제일전어의 산은 영원한 깨침의 속성을 지칭한 것으로 범신을 가리키고, 제이전어의 물은 끝없는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는 지혜를 해명하는 반야이며, 제삼전어의 밝은 각자 생사를 초월하는 반야의 체험과 그 해탈이다. 때문에 이 도리를 묻고 있는 나옹은 자신

의 경지를 빗대어 그것으로 일상의 남자를 제정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공부선에서 시험문제로 제시한 열 가지 항목은 [공부십절목(工夫十節目)]에 잘 드러나 있다. [공부십절목]은 화두공부에서 참구해야 할 대상을 선리를 동원해 제시한 것으로 나옹의 간화선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참구하는 사람들은 [공부십절목]에 제시된 열 가지 화두를 반드시 해결해야 시험에 통과한다는 것이다. 그 열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시방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색을 보고도 색을 초월하지 못하고 소리를 들으면서도 소리를 초월하지 못하는 데 그 도리를 알아차리라는 것이다. 둘째는 이미 색과 소리를 초월했다면 공능을 보여야 하는데 어떻게 공능을 보여야 하는가. 셋째는 이미 공능을 보였다면 공능에 익숙해야 하는데 어떻게 익숙해야 하는가. 넷째는 이미 공능에 익숙해졌다면 그 공능마저 잊어야 하는데 어떻게 공능을 잊어야 하는가. 다섯째는 이미 공능을 잊었다면 감정이 냉담해 마치 목석과 같고 온전히 몰자미하

고 기력이 없어져서 분별의식이 미치지 못한다. 그리하여 심의식이 작용하지 못하고 또한 허깨비의 몸으로 인

나옹혜근의 소참·상당·해제·결제 범어 등 수록

공부십절목(工夫十節目) 통해 10가지 수행관문 제시

간세계에 살고 있는 줄도 모르게 된다. 바로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하는 때는 과연 어떤 시절이던가. 여섯째는 이미 공부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해서는 동정(動靜)에도 따로 분별이 없고 오매(癡癡)에도 늘 똑같으며 온갖 경계를 대하더라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일체를 놓쳐버려도 전혀 상실한 것이 없다. 그래서 마치 어리석은 강아지가 뜨거운 기름 사탕을 함부로 집어삼킨 것처럼 활아먹을래야 활아먹을 수도 없고 또 내뱉을래야 내뱉을 수도 없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그 상황을 훌륭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일곱째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의 온 몸뚱아리를 완전히 탈락한 것처럼 졸지에 의단을 해결했을 경우에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자성인가. 여덟째는 이미 본래자성을 깨우쳤다면 모름지기 자성의 본래작용과 수연의 응연작용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자성의 본래작용이고 수연의 응연작용인가. 아홉째는 이미 자성의 본래작용과 수연의 응연작용을 알아차렸다면 반드시 생사를 해탈해야 한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러서 어떻게 생사를 해탈할 것인가. 열째는 이미 생사를 해탈했다면 모름지기 가는 곳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몸뚱아리는 각자 흩어져서 어디로 간단 말인가.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 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1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 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상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칭, 상단·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묵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옥, 옹호계(신중작법39위, 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사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의식, 구병사식, 불승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 특 강 : 종사이운, 중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제의식 등
 -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상운 스님
2.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승려, 전법사, 포교사, 재가불자등 종단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함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 경산시 계양동 685-2 안평사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본중무소에서 교부)
 7. 접 수 처 : 경북 경산시 계양동 685-2 안평사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18-2546, 팩스 054)974-26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 국내특허 제0751485호
 ·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예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